

1680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437번길 67 손골성지 Tel : (031)263-1242 Fax : (031)263-1252

손골편지 스물아홉번째

해마다 10월 31일 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시월의 마지막 밤을...' 하도 그 가사가 강렬해서 제목이 '시월의 마지막 밤'인 줄로만 알았더랬습니다. 하지만 노래방에서 아무리 찾아도 그런 제목은 없었습니다. '잊혀진 계절'이더군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시월의 마지막 밤을. 뜻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이별의 쓸쓸한...' 가수 이용이야 남 모를 연인과의 이별을 노래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을과의 이별이 못내 아쉬울 따름입니다. 가을이와 헤어지면 추위와 만나야 할 텐데 그러면 낙엽을 쓸어야 하고 눈을 치워야 합니다. 지금의 날씨가 곧 그리워지겠죠.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건 사람이든 날씨든 매한가지입니다.

묵주기도 성월이던 시월에도 많은 분들이 성지를 다녀가셨습니다. 구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두 번의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10일에는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며 성지 잔디밭에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순례객은 물론 마을 주민들까지 오신 아름다운 한마당이었습니다. 24일에는 손골루멘 관현악단이 성당에서 3번째 정기연주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공연 기부금은 네팔의 담푸스 초등학교 학생들의 급식비로 보냈습니다.

그 담푸스 학교는 저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을 준 곳입니다. 도서관과 컴퓨터 교실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선행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점심을 굶는 것을 보다 못한 선생님들이 돈을 모아 먹을 것을 마련했습니다. 2026년을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배고파서 우는 것은 잊혀진 과거이지만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현실이었습니다. 비록 선생님들이 마련한 것은 비스킷 몇 쪽과 우유 한 잔이었지만 산골 아이들에게는 허기짐을 면하고 선생님의 애정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급식에 필요한 돈은 600달러, 대략 80만 원 정도입니다. 하루가 아니라 한 달입니다. 선생님 열 분이 봉급을 쪼개어 만든 사랑입니다. 그분들 월급은 300달러에 불과합니다만 제자들에 대한 사랑은 한도 초과입니다. 십시일반十匙一飯, 열 명이 한 숟가락씩 덜면 한 명

분의 밥그릇을 채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네팔 담푸스에서는 열 명이 봉급을 떼어 한 학교 전체의 점심을 마련하니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근자열 원자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따뜻해지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뭐 그런 뜻이겠지요. 이번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 멀리 네팔, 그것도 산속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4,000km나 떨어진 한국에서 콘서트 기부금을 모아 보내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사랑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가을의 정점에서 사랑과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물들여 준 손골 루멘 앙상블에 고맙습니다. 손골 성지에서의 연주가 담푸스 친구들의 마음에까지 가닿았을 겁니다.

지난달에는 미리내본당 대건회원들이 올해의 마지막 제초 작업을 하고 가셨습니다. 잔디와 잡초들이 싹 정리되니 마치 미장원에 다녀온 것처럼 아주 단정해졌습니다. 매번 성지에 큰 도움을 주시는 대건회원들에게 고맙습니다.

오메트르 쉼터는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관정이 사무실 옆에 위치해서 수압이 약했습니다. 특히 화장실 사용이 빈번할 때 곤혹을 겪곤 했습니다. 그래서 쉼터 뒤편에 작은 물탱크를 설치했습니다. 이제는 물이 늘 콸콸 나옵니다.

이번 달에는 성지 내 모든 수도시설에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동파로 인해 겪게 되는 불편을 생각하면 미리미리 추위에 대비해야 합니다. 세 번 정도 곤욕을 치렀더니 도무지 대비를 미룰 수가 없습니다.

위령성월입니다. 돌아가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죽음을 기억하는 시기입니다. 죽을 때 후회가 덜하도록 하루하루를 신중하게 그리고 정성으로 살아가렵니다.

다미아노 신부 Dream



손골성지의 10월 이야기

미리내성당 제초작업 봉사



손골성지를 위해
구슬땀을 흘려주신
미리내성당 봉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리내성당 봉사자분들께서 성지 주변의 잡초를 정리하고 환경을 깨끗이 가꾸어 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정성과 수고 덕분에 손골성지가 더욱 아름답고 쾌적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손골성지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0월 10일 WYD 버스킹 콘서트



화창한 가을 햇살 아래 손골성지 잔디마당에서 WYD를 준비하며
'노래로 쉬어가는 토요일, 버스킹 콘서트'
가 열렸습니다.아름다운 선율과 따뜻한 목소리가 성지를 찾은 많은 분들의 마음에 기쁨과 위로를 전해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10월 24일 손골 루멘 앙상블 정기연주회 (네팔 학교 급식시설 후원)



손골 루멘 앙상블의 정기연주회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은혜롭게 열렸습니다. 깊이 있는 연주와 아름다운 선율로 함께한 시간은 큰 감동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네팔 Shree Bageshwari School (슈리 바게슈와리 학교)의 급식시설 마련을 위한 후원으로 진행되어, 음악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손골성지 소식

● **후원자들을 위한 미사**

손골성지에서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매일 봉헌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후원자를 위해서는 사망미사를 포함 3대의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나 다른 어려움이 생기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미사시간 안내

주일 · 평일 오전11시 (월요일 없음)

문의 : 사무실 ☎ (031) 263-1242

후원계좌 안내

신 협 : 03227-12-001983

농 협 : 235100-51-010119

국민은행 : 203901-04-199515

하나은행 : 414-110501-00504

예 금 주 : (재)천주교 수원교구 손골성지

손골성지 홈페이지 OPEN

성지 소식과 안내를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

http://songol.or.kr



성지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Fr.김기창, 강민준, 강순진, 강식순, 강원덕, 강윤숙, 강혜영, 고종희, 곽외심, 권금숙, 권택인, 김경미, 김광조, 김기연, 김도훈, 김도희, 김동은, 김명희, 김문경, 김미영, 김민희, 김상훈, 김성겸, 김수현, 김순태, 김순환, 김시환, 김억래, 김연철, 김영자, 김인숙, 김재성, 김재우, 김재훈, 김정자, 김종이, 김주봉, 김창로, 김춘기, 김태경, 김현기, 김혜선, 김홍일, 남정훈, 민경화, 박경수, 박광윤, 박금자, 박미애, 박성옥, 박순희, 박완자, 박인숙, 박재영, 박창호, 박형식, 배제호, 백미경, 백정란, 백현규, 성순옥, 송경호, 신금란, 신동옥, 신현순, 심정미, 안영기, 안용수, 양미진, 양종만, 엄용희, 여승현, 오병택, 오세윤, 오용일, 오이진, 유현정, 윤광희, 윤상용, 윤성욱, 윤중필, 윤형식, 윤혜주, 윤호용, 이경숙, 이경옥, 이근순, 이덕경, 이명미, 이문복, 이상순, 이석재, 이세영, 이승준, 이영란, 이웅복, 이윤정, 이은화, 이정미, 이정숙, 이탁건, 이해경, 이형원, 이혜숙, 이호성, 이효주, 임동구, 임상희, 임희자, 장명자, 전주원, 정경순, 정구승, 정모유, 정보혜, 정소영, 정승희, 정애란, 정연순, 정행자, 조성혜, 조영채, 주미선, 주재선, 지영선, 진미영, 최경자, 최공호, 최선미, 최수정, 최수환, 최영진, 최원규, 최훈근, 최희선, 한미녀, 한애숙, 함윤희, 허정희, 홍보경, 홍수경, 홍혜진, 황애현, 황유순, 황혜정, 광교산장, (주)메디웰코스타

(2026년 9월 성지후원금 총 4,108,000원)